

행복한 가을 날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01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방의 날’ 개최,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으로 훈훈함 더해한방으로
더 건강하게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1층 전시장에서 ‘한방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한방약재 및 보양제 전시 △명문가의 건강장수 비결 영상 시청 △머리가 좋아지는 총명환 만들기 △향으로 마음 다스리는 향낭 만들기 등을 준비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 한방체험으로 진행한다. 특히, 15일에는 고양시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의료취약계층을 한방병원으로 초청하여 7개 진료과에서 침과 뜸 등 다양한 한방치료를 시행하여 훈훈함을 더할 계획이다.

민상연 교육연구부장은 “전통의학인 한의학은 수천 년 동안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왔다.”며, “이번 행사는 한방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며, 행사를 통해 한방과 더욱 친숙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 의사협회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화하기 위하여 10월 10일을 ‘한의학의 날’로 정하고, 2006년부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02 기원정사 설봉 스님, 저소득환자를 위한 후원금 3천만 원 쾌척

광진구에 있는 기원정사 설봉스님은 9월 22일 의료취약계층에 있는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3천만 원을 기부했다.

설봉 스님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중생의 병을 고쳐주는 약사여래부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조금씩 기금을 모았다.”면서, “병이 있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태석기 의료원장은 “스님의 큰 뜻이 헛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03 1004 Day기념 ‘간호부 나눔 봉사 활동’

간호부는 10월 1일, ‘1004Day(천사데이)’를 맞아 환우와 보호자, 내원객을 대상으로 ‘간호부 나눔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1004Day는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착한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날로 10월 4일을 가르키며, 간호사들은 10월 4일이 포함된 주중 하루를 정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1004Day를 빛내고 있다.

올해는 ‘건강한 삶은 간호사와 함께! 건강 100세를 위한 혈압 관리’의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병원 1층 로비에서 진행했다. 간호사들은 고혈압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안내하고 혈압관련 상담과 무료 혈압측정, 혈당검사로 내원객의 건강을 도왔다. 또한, 2016년 건강기원 새해 달력 나누어주기, 연잎차 제공, 폴라로이드 사진찍기, 한방차 제공, 아나바다 장터 등의 다양한 이벤트는 내원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영양팀에서는 저염식 전시와 영양상담 등을 통해 간호부를 도왔다.

곽월희 간호부장은 “병원을 찾은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작은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천사데이의 훌륭한 뜻을 되새기는 마음에서 예전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천사데이를 통해 참 간호를 실천하고 신뢰받는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4 제12회 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 “Astana Leisure 2015” 참가

국제진료센터는 지난 5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되었던 국제보건박람회에 이어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12회 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 “Astana Leisure 2015” 참가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직항노선이 열리면서 최근 의료관광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도시로 이번 박람회는 많은 환자 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 열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국제진료센터는 9월 24일에 대한민국 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의 주최로 열린 아스타나 심장혈관센터와 검진센터를 돌아보는 팸투어를 실시했고, 25일에는 두만호텔에서 현지 의료관광 에이전시와 정부인사들을 초청해 병원 PPT 설명회를 열고 비즈니스 미팅에서 현지에이전시와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주최한 만찬에서는 카자흐스탄과 국제진료사업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진행된 의료 컨설팅은 앞으로 본원에 내원하게 될 환자들을 먼저 만나서 상담하는 기회가 되었고, 현지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료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바탕으로 맞춤형 국제진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인공 37호

응급의학과

최인영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한 그분, 응급실 교육책임 간호사인 최인영 선생님을 이번 주 주인공으로 모십니다.

전쟁터에서는 유능한 지휘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일반 병사들의 생사가 좌우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는 이를 빗대어 응급실을 충성 없는 전쟁터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일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응급실 근무 특성상 근무자가 모두 지쳐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근무할 때 본 최인영 선생님은 중간관리자로서 전쟁터에서 부하를 살리는 유능한 상사처럼 상황을 척척 해결하곤 했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을 때면 환자들에게 더욱 친절해지고, 강한 책임감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을 찾은 엄마들이 갈팡질팡 할 때면 아이 엄마에게 다가가 “보호자가 안정되어야 아기도 안정되니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먼저 힘내야 한다.”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곤 했습니다. 이는 간호사이기 이전에 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응급실을 찾은 엄마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었을 것이고, 마음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은 병동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가끔 응급실에 가면 반갑게 맞아 주는 마음 따뜻한 응급실 식구들 사랑합니다.^^

원무팀 문 병 모

알 리 미

동구보건소 건강강좌 주제: 금연 및 건강관리 | 강사: 한방여성의학과 김동일 교수
일시: 10월 14일(수) 10:00 | 장소: 동구보건소 1층 건강누리

덕양구보건소 건강강좌 주제: 뇌혈관질환 관리 | 강사: 신경외과 김병철 교수
일시: 10월 15일(목) 10:00 | 장소: 덕양구청 2층 대회의실

무료영화상영 상영작: 베테랑 | 일시: 10월 14일(수) 14:00 | 장소: 5층 대강당